



2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
도내 마스크기업 현장점검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음 2월 15일) 제249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 극복 종교계도 동참을”

송하진 도지사, 종교행사 자제 긴급 호소
“감염병 확산 중대 고비가 될 지름이야말로
지역사회와의 굳건한 연대 절실” 덧붙여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내 모든 종교계에 집회 및 행사 자제를 호소했다. 전북도는 앞으로의 2주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확산과 장기화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종교집회 및 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 호소문을 도내 모든 종교계에 전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했고, 개신교의 대다수 교회가 주일예배 대신 영상 및 가정예배로 대체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해 종교계의 더 큰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대 고비가 될 앞으로의 2주간, 종교계의 모든 집회와 행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름이야말로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의 절대적인 협조와 지역사회와의 굳건한 연대가 절실하다”며 “모든 종교 지도자 및 종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호소문에서 “일부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으로 전 국민의 안전과 일상마저 위협받고 있어, 대규모 행사와 다중집회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왔고, 종교계는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는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환경부, 지정 고시 공고
잔여 현업축사 매입
새만금 수질개선 기대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되어 새만금 수질개선의 최대 핵심사업인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익산, 금오, 신촌)에 남아있는 잔여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기존 고시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

로 ‘특별관리지역’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새만금사업법 개정, 2020년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원 확보 등과 더불어 이번 고시를 통해 왕궁 축사매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총 1,677억원의 (국비 1,285, 지방

비 392)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비 954억원으로 전체 현업축사의 75%인 39만㎡를 매입해 철거 후 수질조성을 완료했으나, 잔여 현업축사로 인해 그간 추진한 사업효과 반감 등이 우려되어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9년에 2018년 종료됐던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개에 노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국비 389억원을 투입해 현업축사 총 13만2,852㎡(81농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국회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0년 예산에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원을 확보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는 확보한 국비 123억원으로 현업축사 4만2천㎡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만 연장한 것은 정부가 2020년 사업성과에 따라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올해 매입계획량 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환경청 및 익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업축사 매입량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현업축사 전체를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수 도 새만금수질개선 과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악취저감과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마스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난 6일 임실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께서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임실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만 2세~만 6세)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1,000개를 긴급 제공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전북 코로나19 검사의뢰 건수 감소 추세

최근 2~3일 사이 전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의뢰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일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월 22일 전주에서 최초 1건이 검사가 진행된 이후 3월 3일 무

려 455건까지 검사량이 증가했다. 이후 3월 4일 246건, 3월 5일 108건으로 감소 추세가 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전북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및 도민들의 제보를 통해 1만3269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해 유증상자 472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462명을 검사 완료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사업 지원대책 시행

과제접수 기한 3월말까지 연기

전북도는 연구개발(R&D) 기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제접수 기한을 3월말까지 연기하고, 이후 심각단계 지속 시에는 별도의 추가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의 경우 산?학?연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작

성하는 특성에 따라 대인접촉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다.

또, 4월경 예정된 현장조사와 대면평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을 유지할 경우 현장조사는 생략하고, 대면평가를 서면평가로 변경하는 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시행하는 중간 평가 시에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연구활동 부실 우려에 대

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비 지원사업의 연구개발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비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신규 고용 연구인력만 연구개발 지원금을 사용하게 했던 규정을 기존 연구원에게도 1,000만원까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또,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민간부담금 의무 매칭비율을 심각단계 기간 당초 40% 또는 25%에서 일괄 20%로 낮추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개최 시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 구매비용을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토록 했다.

국가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혜택이 적용된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